

이범호 감독·KIA 팬들 “맑은 날씨 반갑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미국 어바인=김여울 기자

비 그치자 실외 훈련 박차 팬·외인 타자 위즈덤 가족 먼길 달려와 선수들 응원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에 해가 뜨자 이범호 감독과 팬들이 웃었다.

“디펜딩 챔피언” KIA는 미국 어바인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202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우승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전원 비즈니스석을 타고 어바인으로 온 KIA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큰 일교차의 날씨가 이어졌지만 훈련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비가 내리면서 KIA 훈련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7일에는 오전까지 비예보가 있었던 만큼 오전·오후 훈련 스케줄을 바꿨다. 선수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오전에 웨이트 훈련을 하고, 오후에 그라운드에서 기술훈련과 볼펜 피칭을 했다.

8일에는 아예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결국 야수들은 실내연습장을 찾아 이동해야 했고, 투수들은 웨이트 훈련으로 일정을 마무리해야 했다.

이날 볼펜피칭이 예정됐던 양현종은 계획대로 시즌 준비를 이어가기 위해 아쉬운 대로 실내연습장



미국 어바인에서 스프링캠프 중인 KIA 타이거즈의 이이리(왼쪽부터), 김도영, 정해영이 9일 그레이트 파크 야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볼펜에서 50구를 던졌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됐지만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훈련 스케줄을 짜느라 머리 아픈 시간이 됐다.

다행히 4번째 팀 마지막 훈련날이었던 9일에는 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KIA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 수 있었다. 덕분에 포수들과 볼펜포수들이 바꿨다.

KIA는 1·3루 양쪽 볼펜과 마운드까지 활용해 동시에 3곳에서 볼펜 피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선 훈련 때는 3조로 나눠 볼펜 피칭이 이뤄졌지만, 이날

은 5조까지 볼펜피칭조가 편성됐다.

1조 정해영, 전상현, 이준영을 시작으로 마지막 5조 유승철, 이이리까지 14명의 투수가 오전부터 볼펜피칭을 이어갔다. 마지막 주자였던 이이리가 70구까지 공을 던지면서 투수코치들은 평소보다 늦게 경기장에서 철수할 수 있었다.

맑은 날씨가 반가웠던 또 다른 이들이 있었다. 바로 미국에 거주하는 KIA 팬들이었다.

이날은 현지 시간으로는 8일 토요일이었다. 주말을 맞아 많은 교포가 KIA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걸음을 했다. 어바인 지역에 거주하는 이

들은 물론 1시간을 넘게 샌디에이고에서 달려온 이들도 있었다. 유니폼까지 챙겨 입고 나온 열성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맑은 날씨 덕분에 KIA 팬들에게는 즐거운 주말 나들이가 됐다.

새 외국인 타자인 패트릭 위즈덤의 가족도 이날 캠프를 찾아 훈련을 지켜봤다. 시애틀에서 날아온 아내와 세 아이, 부모님, 남동생, 조카까지 7가족이 출동해 위즈덤을 응원했다.

어바인 인근에 거주하는 위즈덤의 부모님은 캠프 첫날에도 경기장을 찾아 이들의 훈련을 지켜봤었다.

그의 아버지는 “경기장에서 45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다. 이들의 훈련을 직접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웃었다.

새 팀에서 새출발을 앞둔 위즈덤도 가족의 응원 속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같은 팀이라는 소속감도 더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됐다.

위즈덤은 “가족이 가까이 있어서 많은 힘이 된다”며 “동료들이 아이들을 반겨주고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팀의 일원이 됐고 환영받는 기분이었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이닝 욕심 버렸다”... 조상우 “기대만큼 강해질 것”



스프링캠프서 몸 만들기 한창

이닝의 무게를 내려놓은 KIA 타이거즈 양현종(사진)이 가벼운 걸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KIA 양현종의 또 다른 이름은 이닝이다. 양현종은 지난 시즌 171.1이닝을 소화하면서 KBO리그 첫 10년 연속 170이닝 기록을 달성했다.

기록을 만들어 왔던 양현종은 올 시즌 ‘이닝’이라는 목표를 지었다.

양현종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닝에 대한 큰 생각은 없다”며 “아프지 않고 꾸준히 던지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건강하게 꾸준히 마운드에 설 수 있다면 이닝은 저절로 따라오는 만큼 양현종은 넓은 시야로 202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 과정은 순조롭다. 예년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볼펜피칭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 KIA의 스프링캠프가 마련된 미국 어바인에 비가 내리면서 이날 볼펜피칭을 준비했던 투수들은 웨이트로 훈련을 대체했다. 하지만 양

현종은 야수조와 함께 실내연습장으로 이동해 준비한 대로 볼펜피칭을 소화했다.

이날 50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은 “차근차근 투구수를 올려가는 과정이다. 현재는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컨디션 올리는 시기가 아니니까 유지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시즌에 맞춰 몸상태를 올려가고 있는 양현종은 투수 최고참이라는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후배들의 볼펜피칭을 지켜보면서 조언도 해주고, 타자 역할도 해주면서 훈련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좋은 분위기에서 ‘연패’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캠프, 양현종은 ‘초심’을 이야기한다.

양현종은 “작년 시즌은 작년 시즌이고 우리는 지금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나도 선수들도 지난 시즌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팬들과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1년 1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 기록은 저했지만 제임스 네일이 잔류했고, 장혁식을 대신해 조상우가 합류한 만큼 KIA 입장에서는 ‘연패’ 욕심을 낼 수 있는 시즌

이다.

양현종도 “네일이 있어서 든든하다. 지난해 좋은 성적 거뒀고 올해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마운드에서는 조상우가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마운드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양현종이 주목하고 기대하는 조상우의 시즌 준비도 순조롭다. 새 팀에서의 적응을 끝낸 그는 9일 캠프 4번째 볼펜 피칭을 소화하는 등 부상을 털어내고 시즌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조상우는 “아픈 데도 없고 선수들이 잘 반겨줘서 금방 적응한 것 같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했던 (이)우상이 적응 잘하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선수들이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운동하고, 확실히 강팀답게 다들 잘하는 것 같다”며 새 팀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팀의 연패에 도전하고 조상우는 FA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조상우는 “새 팀에 오게 됐고, 동기부여가 되는 시즌이니까 안 아프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다”며 “지난 시즌은 2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서 생

각만큼 퍼포먼스가 올라오지 않았고, 예상에 없었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웠다. 올해는 부상 없이 잘하는 게 목표다. 이제 군대는 안 가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있다”고 웃었다.

비시즌에 미국 트레드 에슬레틱스에서 야구 공부를 했던 그는 자신의 강점인 강속구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조상우는 “몸에 스피드를 더 붙여야 될 것 같다. 몸 스피드가 빨라야 구위도 같이 올라온다”며 “트레드에서 배운 것을 계속 신경 쓰고 있다. 몸의 꼬임을 더 유지해서 끌고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해왔다. 몸에 더 익혀야 하니까 그 부분이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조상우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전국구 구단’의 일원에 맞는 활약도 다짐했다.

조상우는 “지난해 우승팀이기도 하고, 워낙 강팀에 팬분들도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 기대에 맞게 잘 해야 한다. 우승팀에 왔는데 연속해서 우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대하는 모습대로) 강하게 잘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페퍼스 연습 불발...창단 첫 두자릿수 승 미뤄

흥국생명에 0-3 완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연습 질주 중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 셋아웃 패를 당하면서 창단 첫 두자릿수 승수 달성에 실패했다.

페퍼스는 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시즌 V리그 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흥국생명에 세트스코어 0-3(13-25 12-25 25-27)으로 패했다.

페퍼스는 이날 ‘구단 최다’ 10승에 도전했지만 상대의 맹공에 공수가 흔들리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직전 경기에서 팀 최다 33득점을 폭발했던 테일러는 이날 팀 최다 15득점(공격 성공률 42.4%)을 올리며 큰 활약을 선보이지 못했다.

도 박정아(22.58%)와 이한비(23.33%)가 각각 7득점을 올렸고 박경현이 6득점(60%)으로 힘을 보탤지만 팀 승리로 이끄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페퍼스의 팀 공격 성공률과 팀 리시브 효율은 각각 29.84%, 25.68%로 흥국생명의 43.12%과 45.65%에 크게 못 미쳤다.

1·2세트는 상대 흥국생명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1세트 리시브 효율이 12.5%(상대 53.85%)에 불과하면서 초반 점수 차가 4-14까지 벌어졌다.

테일러와 교체 투입된 박경현이 과감한 공격을 선보이며 100%의 공격 성공률(4득점)로 활약했지만 초반 점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13-25로 1세트를 내렸다.

투트쿠의 후위 공격으로 2세트 선취점도 내준 페퍼스는 7-10까지 추격했지만 이후 상대의 9연속 득점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7-19, 1세트에서 활약했던 박경현이 킥오프에 성공하면서 상대의 득점 흐름을 끊어내는 듯 했지만 김연경의 킥오프으로 격차를 좁이지 못했다.

11-24에서 이한비가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으로 한 점을 더했지만 연속 득점을 노린 이한비의 오픈이 상대 박혜진에 가로막히면서 2세트도 흥국생명이 쉽게 가져갔다.

3세트 페퍼스는 1, 2세트와는 다른 전투력으로 흥국생명을 긴장시켰다.

테일러가 경기에 적합한 듯한 모습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활약했다. 1-2에서 테일러가 2연속 득점을 하는 등 페퍼스가 흥국생명에게 연달아 4점을 가져오면서 이날 처음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역전과 재역전의 흐름이 이어졌다.

흥국생명에 추격을 허용했던 페퍼스가 12-15에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6연속 득점을 해내며 전세를 뒤집었지만, 상대 투트쿠의 킥오프으로 24-25에 몰렸다.

박정아가 킥오프으로 간신히 25-25를 만들었지만 이후 흥국생명 정윤주가 2연속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갔다.

흥국생명은 이날 경기를 통해 54일 만의 부상 복귀전을 치른 외국인 선수 투트쿠를 앞세워 7연승을 행진을 벌였다.

흥국생명은 양팀 최다 16득점(51.61%)의 투트쿠, 14득점(88.89%)의 피치, 13득점(36.67%)의 김연경, 10득점(31.25%)의 정윤주 등 균형잡힌 공수 전력을 구축해 선두를 굳혔다.

지난 5일 GS칼텍스 서울Kixx전에서 폴세트 승을 거두면서 5연패를 끊어냈던 페퍼스는 이날 분위기를 잊지 못했다.

한편, 1위 흥국생명에 막힌 페퍼스는 오는 14일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2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상대로 첫 ‘10승’에 도전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우상혁, 시즌 첫 세계대회 정상

세계육상연맹 인도어투어 실버 후스토페체 높이뛰기 우승

‘스마일 점퍼’ 우상혁(28·용인시청·사진)이 올 시즌 첫 대회에서 2m31을 넘어 정상에 올랐다.

우상혁은 9일 체코 후스토페체 스포츠홀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연맹 인도어투어 실버 후스토페체 높이뛰기 대회에서 우승했다.

태국, 한국, 체코에서 이어간 훈련 성과가 기록지에 드러났다.

우상혁은 2m18, 2m22, 2m25, 2m28, 2m31을 경쾌한 몸놀림으로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28을 넘은 올레 도로슈크(우크라이나)는 우상혁이 2m31을 1차 시기에 넘자, 바를 2m33으로 높여 두 차례 더 시도했으나 연거푸 바를 건드렸다.

우승을 확정된 우상혁은 2m35를 신청해 실패한 뒤 자신이 3년 전 후스토페체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 2m36보다 1cm 높은 2m37에 도전했다.

한국 기록 경신은 미안으로 남았다.

우상혁은 2m37에 실패하고 잠시 아쉬워하다가 환호하는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날 국제부 남자 경기에는 13명이 출전했다.



이 중 6명이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결선(상위 12명)에 진출한 선수였다.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갖춘 선수는 우상혁이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준비하며 “우상혁은 세계육상연맹 내선수권에서는 금메달(2022년)과 동메달(2024년)을 땀고, 실외 세계선수권에서는 은메달(2022년)을 땀으며,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며 “늘 웃는 이 선수는 후스토페체 대회에 두 번 출전했다. 2022년에는 2m36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지난해에는 2m33으로 2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대회 조직위가 주목한 우상혁은 3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우상혁은 19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에서 시즌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